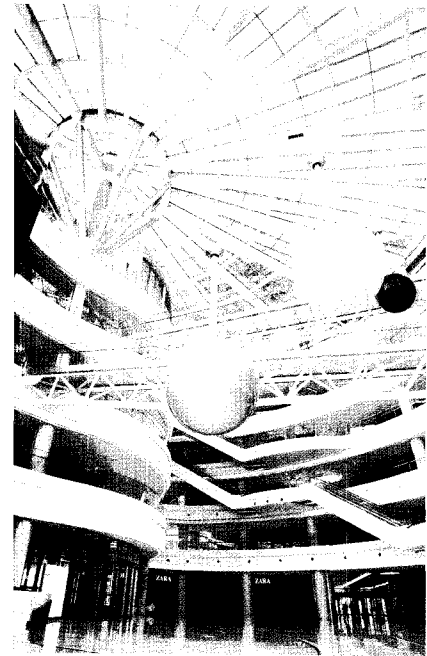


타임스퀘어

이번 탐방은 지난 2009년 9월 서울 영등포에 개장한 이래 주
중 평균 16만 명, 주말 최대 32만 명의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서울 서남부 상권의 핵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복
합쇼핑몰 타임스퀘어를 방문하였다.



국내 최대규모의 도시형 문화공간으로...

타임스퀘어는 연면적 37만㎡ 규모의 대형 복합건축물로서, 서울 서남부 쇼핑몰의 명실상부한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연면적 29만 4천여㎡의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를 능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지리적으로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2호선 문래역, 5호선 영등포시장역 등과 인접한 광역교통의 중심지로서, 유동인구 100만 명의 매머드급 상권을 갖추고 있다. 호텔, 오피스, 백화점, 멀티플렉스 영화관, 이마트, 교보문고 등 상업, 업무, 문화, 레저가 어우러진 도시형 문화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450평 규모의 1층 메인 아트리움은 옥상까지 개방된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대형 통유리지붕을 통해 실내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으며, 늘 자연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내부 이벤트홀이나 한정된 공간을 활용해야만 하는 기존 쇼핑몰과의 확실한 고객서비스 차별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현재 무료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몰링'이라는 새로운 트렌드 주도...

타임스퀘어는 유통업계에서 '몰링(Malling)'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몰링'은 복합쇼핑몰에서 쇼핑 뿐 아니라 영화, 놀이, 외식 등 다양한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등 여가도 함께 즐기는 소비형태를 말한다. '복합쇼핑몰'은 고객들이 쇼핑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차 장기화되고 있고, 가족 중심의 쇼핑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몰링' 처럼 윈스톱/올데이 복합쇼핑이 가능하도록 고객편의를 극대화한 공간적 특징을 갖는다. 타임스퀘어도 설계단계부터 자연스러운 층간 연결구조로 고객들이 산책하듯 다니며 쇼핑몰 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선의 폭도 16m에 달하는 등 매장 전반에 여유 공간이 충분하도록 '몰링' 개념을 최대한 반영했다. 매 주말 열리는 무료 콘서트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도 뜨겁다. 특히 인기 대중가수의 공연이 있는 날은 평소보다 2.5배의 사람이 몰리곤 한다. 이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 소외계층이나 지역민들을 위해 수준 높고 감동을 주는 다양한 무료공연을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다.



고객안전을 최우선으로...

타임스퀘어는 건물 전역에 소화능력이 뛰어난 자동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전기실, 기계실, 통합방재실 등 물 소화설비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는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하였다. 경보설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트리움 상부의 불꽃감지기 외에는 감지기 전체를 복합형으로 설치했을 뿐 아니라, 건물별로 설치된 방재실 외에 별도의 통합방재실을 설치하여 전체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2개의 서로 다른 변전소에서 이중으로 전력을 수급 받고 있으며, 비상용 발전기의 연료공급 중단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스엔진을 설치하는 등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친화적인 에너지 시설로 태양열과 지열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5.2kw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유비쿼터스 기반의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는 타임스퀘어만의 자랑이다. 전력, 냉난방, 공조, 에너지 등 모든 설비 뿐 아니라 자산관리, 작업공정, 주차위치 확인이 자동으로 수행된다.

명실상부한 문화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길...

개장과 함께 국내 유통업계에 '몰링'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며 "물건이 아닌 문화를 파는 곳"이 되고자 노력하는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가, 명실상부한 서울의 문화생활 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쇼핑몰이 되길 바라며 이번 탐방을 마쳤다. ☺

